

약삭빠르면 그 무너짐도 빠르다



신 세 철 의
쉬운 경제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프란체스코 교황)”고 하였다.

책임이 큰 위치에 있을수록 언행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욕심 많은 어릿광대가 노력 없이 어찌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면 책임감보다 저 혼자 잘난 체 으스스대며 조직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다가 그 자신도 어느 사이에 망가지기 쉽다.

뒤편임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우연치 않게 남다른 힘을 얻으면 마치 때무기가 풀잎 위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우쭐거리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아는 것이 쏘끔 있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 말장난을 일삼다보면 “장님이 촛불을 들고 남을 비추려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밝지 못하다”는 격이다. 자신을 위해

서 세상이 있다는 확증편향심리에 빠져들면 조직과 사회의 집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도 비극을 맞이하는 경로를 밟는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나아가면 그 무너짐도 빠르다(其進銳者 其退速. 맹자, 盡心章句 上 44)”고 경계하였다. 일시적 승리에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는 어느새 기운이 쇠잔해져 눈앞에 패망이 보인다는 뜻이다.

감독이 경기흐름과 선수들의 특기를 조화시키려들기보다 저만 돋보이고 저 자신을 위한 경기를 이끌려는 오만에 빠진다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인재”라는 평을 받던 인사의 ‘헤아리지 못할 돌출행동과 입 놀림’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팀의 승리에 앞서 혼란스러운 언어의 유희를 남발하다보니, 오죽하면 대표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간과 쓸개까지 빼냈다.”며 기진맥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검볼보다 가벼운 입으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면 관전자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공생의 길을 찾아야 같이 사는데 혼자서만 살려다보면 저 먼저 죽는 것이 세상 이치다.

허황된 영광에 사로잡히기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떳떳한 삶의 궤적이 뒷받침 되어

야 좋은 마무리가 가능해지는 바람직한 인생이다. 초년 입신양명에 우쭐해져 정신이 혼미해지다보면 희한에 찬 말로가 기다린다. 이른 출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뒤편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고 스스로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식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귀한 자식에게 출세를 부추기기에 앞서 사람 됨됨이부터 가르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 하찮은 인품에 탐욕에 가득 찬 심성을 가진 인사가 허명을 얻게 되면 인간다운 시각을 가지기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기’처럼 어려워진다.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무지렁이들이 따로 있다는 편견에 빠진 인사가 중책을 맡은 조직이나 사회가 어찌 온전할 수 있을까?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은 간난신고를 겪어보아야 비로소 세상이치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힘을 쫓수록 더 크게 쫓겨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것저것 다 잃기 마련이다. 일찍 출세하면 만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가 드물다(少年登科 不得好死)라는 경구가 생긴 까닭 아닐까?

/경제칼럼니스트

애플과 C-타입



기 지 수 집
허 정 연
(산업부)

유럽연합(EU)이 던진 ‘USB-C’ 통일 법안이 애플의 액세서리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유럽 시장 소비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플이 고유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내렸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 C타입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벌써부터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아이폰 C-타입 되면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 따로 안 챙겨도 되겠다”라며 반기는 사람들도 보인다. 애플은 2012년 출시한 아이폰5 시리즈부터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을 채택한 케이블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자사 인증(MFi)을 받지 않은 충전장치에 속도 제한을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화제다. ‘무머’로 치부하기에는 ‘애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애플의 행보가 주목된다.

‘MFi 인증’은 타 제조사가 만든 충전장치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플이 지난 2005년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다. 애플 공식 판매채널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거나, MFi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 기기 연결 시 ‘액

세서리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볼 수 있다.

EU가 ‘C-타입 통일’을 결정한 이유는 C타입, 8핀(라이트닝), 5핀 등 제조사마다 규격이 제각각이었던 충전기 포트를 통일시켜 불필요한 충전기 폐기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함이었다. 애플이 소문처럼 MFi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구별하게 되면 법안의 취지가 희석된다.

또한 애플의 MFi 인증을 받으려면 애플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를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아직 애플에서는 아이폰 15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그러나 아직은 C-타입 케이블 속도 제한은 ‘무머’다. 하지만 애플이 진정으로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속도 제한’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9일 (음 2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녀에게 주려는 생각을 접고 자금계획을, 48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여행, 60년생 오늘이라도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자, 72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편하다, 84년생 아침부터 종일 운전 천천히.



37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잘 지켜야, 49년생 사방이 깜깜하니 곧 새벽이 온다, 61년생 혼자서 가는 출장길, 73년생 돈을 빌리면서 주식은 하지 않도록, 85년생 오늘이 내일을 뒷받침하니 겸손으로 행동.



38년생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자, 50년생 묵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62년생 현 상황이 천국이니 환경을 바꿀 생각은 접는 것이, 74년생 동료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접어보자, 86년생 실천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해보자.



39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51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63년생 빛에서 빛을 갠다, 75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 87년생 어디를 가든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하지 말 냈는데.



40년생 오후에 뜻밖의 좋은 일이, 52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64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이니 다른 이성관계는 정리, 76년생 무난한 것이 결과를 원만히 할 터, 88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41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53년생 매수문서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65년생 환심을 사서 투자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아채도록, 77년생 자영업은 잘 생각해야 한다, 89년생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니 기본대로 하는 언행을 조심.



42년생 기러기발을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게 하니 소리가 나겠는가, 54년생 거래에 인정이 있게 해야, 66년생 권술심생은 재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78년생 봄의 향연에 능력이 넘쳐나, 90년생 좋은 일이 거듭될수록 약속을 중요하게.



43년생 세월 앞에서 무슨 사람 티링인가, 55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꾸니 무용도원에서 대접받는 기본이다, 67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79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 일을 생각하며 견디자, 91년생 내가 하는 생각이 상대도 할 수 있으니.



44년생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일일수도, 56년생 꽃만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68년생 아름다운 여자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80년생 오후5시부터 운전주의, 92년생 사랑은 허망하기도하다.



45년생 하나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57년생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기마련이니, 69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81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93년생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보라 꿈은 이루어진다.



46년생 친구간의 우정이 남아있어 모임에 간다, 58년생 행동에도 기증선결이 있어야,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보람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82년생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94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미팅도 부담이.



47년생 황혼이혼은 자족행이니 기술을 배우면서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59년생 순조로운 하루, 71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 83년생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 95년생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는 기우에서 벗어나야발전.

김상회의四季

논상



상학相學에서 ‘눈은 입만큼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잘 비유된 말 같다. 눈이 큰 사람은 소리도 큰 편인데 성량聲量의 대소와 눈의 크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이 큰사람에 약인이 없다고 하는데 비교적 여성이 그렇다. 성격은 양성陽性으로 남남관계에서도 곤란한 정사情事도 무의식중에 얘기하는데 마음도 개방적開放的이므로 비밀이 없음이다, 눈이 작은 사람은 진지한 사업에 열중하는 성향이 있고 세상에 뜻있는 일을 하고자 애쓴다. 여자가 비슷한 정도의 미인이라면 눈의 크기를 확인하여 유혹하면 성공률이 높다. 눈과 눈 사이에 또 하나의 눈이 들어갈 정도가 성인成人의 표준으로 보고 눈 사이가 넓으면 조속하다. 여자 쪽에서 눈이 큰 청년을 비교하면 만사에 화려한 형이므로 운명을 잘 개척해 나가고 선물도 잘 보내온다. 다만 큰 눈에도 힘찬 눈과 탁한 눈이 있다. 힘찬 눈을 가진 사람은 사물의 구상이 크고 비범한 수완가라서 큰 사업을 이룩할 기우氣宇를 지닌 인물이다.

작은 편은 성실하지만 가라앉은 성격이라 사람을 사귀는 것도 돈벌이도 연애의 기고도 재빨리 성과를 거두는 노릇은 못하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경멸한다. 비만형이면서 눈이 가늘고 작은 사람은 부드럽고 온순한 인품으로 보이기 쉬운데 실은 인색하고 겁쟁이며 마음이 약하다. 이런 경우 말년이 불운하다. 작더라도 힘차게 가늘거나 긴 눈은 사고력이 많고 자비스러운 사람으로 자선사업을 하기도 한다. 누굴 선택할까는 각자의 몫이다. 굳이 적용시킬 말은 아니지만 사팔뜨기는 위로 치켜보는 눈과 아래로 내내려 보는 눈을 구별하고 위로 보는 것은 그다지 흉하지 않으나 아래로 보는 눈은 운명적으로 가정불화의 흉상으로 여겨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8
4	9	1		5	2
				2	4
	6	7		9	
			7	3	
				1	5 9
4		8			
7	5			2 3 8	
5					

	5				4
	1 3			2	7 6
6				1	9
	3				
		7		5	2
					6
	7			2	
2 8		6			1 3
		6			2

정답

4	9	1	8	6	2	9	8
8	8	2	9	4	9	6	1
6	9	1	2	8	8	4	9
2	6	9	8	1	9	4	8
2	9	4	8	1	8	1	6
8	1	8	4	6	2	9	9
9	4	6	2	2	1	9	8
9	2	1	9	8	8	1	6
1	8	8	6	9	4	9	2

6	2	9	8	8	2	9	4	1
2	8	1	4	6	9	9	8	2
8	4	9	2	1	6	2	8	8
1	9	2	8	8	4	2	6	9
8	8	2	1	9	6	2	9	4
4	9	6	9	2	2	1	8	8
9	6	8	2	1	8	4	2	9
9	2	8	2	4	9	8	1	6
2	1	4	6	9	8	8	9	2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